천국 문

천국 문이 열리자 수많은 이들이 천국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.
한 명씩 들어가 재판을 받았습니다.
먼저 랍비가 심판대에 섰습니다.
"나는 평생 하느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쳤지요."
천사가 말했습니다.
"그러나 그 동기를 알아봐야 겠다."
성인이 다음에 섰습니다.
"저는 평생 금식하며 기도하였지요."
천사가 말했습니다.
"그러나 그 동기를 알아봐야 겠다."
여관주인이 그 다음에 섰습니다.
"저는 집 없는 이들에게 항상 문을 열어 주었습니다. 밥 없는 이들에게 항상 밥상을 차려 주었습니다."
천사가 말했습니다.
"천국 문을 열어라. 여관 주인은 더 조사할 것이 없다."